

1 인사 말씀

- 작년 한해 가계부채가 141조원 증가한 데 이어, 금년 1~2월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 - 금융권별로 보면,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,
 - 제2금융권,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“리스크 관리 보다 자산늘리기 영업”에 치중함으로써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판단됨
-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속될 경우 향후 금리인상 등에 따라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됨으로써
 - 해당 조합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 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
- ➔ 따라서 개별 조합·금고, 중앙회는 물론, 주무부처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
-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
 - ① 전 업권에 걸쳐 각 조합·금융회사가 당초 자체 계획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중

- ② 당초 계획 대비 과도하게 가계대출이 증가한 개별 조합·금융회사에 대해 CEO면담과 104개 조합·금융회사 현장점검* 실시
 - ※ 상호금융 조합 82개(70개에서 확대), 저축은행 5개, 여전사 7개, 보험사 10개
- ③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.13일 실시한데 이어,
 -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,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%에서 30%로 상향하는 등의 건전성 감독 기준 강화를 추진(규정변경예고 : 3.24.~5.3.)
 - 향후 상호금융 가계부채 증가속도, 리스크관리 점검결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방안도 검토할 계획
- 주무부처와 중앙회도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림
 - 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지원 (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3.13일, 여타 조합은 6월부터 시행)
 - ②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집단대출·공동대출, 권역외대출에 대한 점검 및 리스크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
 - ③ 행자부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다른 상호금융과 같이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지속 점검하고
 - 다른 상호금융과 동일한 내용의 건전성 강화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
 - ④ 아울러,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위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가 자칫 서민층의 자금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 조합·금고에서 햇살론을 적극 취급하고, 상반기중 취급예정인 사잇돌대출도 적극 공급해 주기 바람